

2008년 7월 21일 메시지

목회는 젊어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7,28살 되면 국회의원도 하는데 왜 젊어서 목회 하는 걸 겁나게 생각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시골 촌사람이 가서 외딴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세계를 누비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자에게 자꾸 역사하십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못 하십니다. 처음에 큰 교회는 부담되니까 3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사람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니 목회를 해야 합니다.

큰 교회를 맡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만큼 유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몸부림치면서 해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 지 압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게 훈련을 하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명예를 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명예로 하지 않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눈물겹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하고 다릅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는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관리자는 굉장히 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애기 낳고 관리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차에 치어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함정에 빠져서 죽고 합니다. 관리만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관리들을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컸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5살 됐다고 큰 것입니까? 5년 키웠다고 다 관리한 것 아닙니다. 부모들 보십시오. 어머니도 91살인데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관리를 해주십니다. 관리를 하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만큼 보람이 옵니다. 이번에도 관리를 하니깐 300명이 넘게 돌아왔습니다. 관리 안 했으면 300명이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그 만큼입니다. 섭리 온지 7,8년 되었다고 다 큰 것이 아닙니다. 7년이면 신앙나이 7살입니다. 7살이 무엇을 압니까? 내 나이 30살까지도 마음을 못 났습니다. 34살에 겨우 나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관리하면서 해줘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중국 쪽은 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고기를 기를 때 엄청난 고기밥을 막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크면 됐다고 딱 끝납니다. 그것이 중국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기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나중에 중국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한번 빼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잘 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100프로 확인하면서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못 봅니다. 자기 방도 자기가 맨날 쓸때는 청소가 잘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도 해버릇해서 습관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단 누가 와서 쳐다보면 청소 안했는지 바로 압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내가 보았습니다. 4년 동안 지켜봤는데 관리를 무섭게 합니다. 한 20미터에 하나씩 경찰들이 서 서 관리를 합니다. 수피까지 전부 관리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 사고가 안 납니다. 중국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게 다릅니다. 벌금 나오고 형 받고 굉장합니다. 한국보다 더 무섭게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개성적으로 관리해주면서 해야 잘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할 일이 많습니다. 20년동안 산에 있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사 지으면 농사꾼 되고 장사하면 장사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습니다. 흙 갖다 놓고 도자기

를 만들 수도 있고 배추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흙으로 배추를 심는 것보다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만들기에 달려있고 사용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말씀에 시계 설교 들었지요? 화장실에 있는 시계는 습해도 계속 갑니다. 그 시계는 나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나는 습한 곳에서 8년 살았습니다. 한 평 남짓한 곳에서도 끄덕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시계처럼 살아라.’ 어디를 갖다봐도 그대로 시계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디 갖다 놓으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독거리며 크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원칙으로 해야 큰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방안에 있어도 수영합니다. 정신이 썩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섭리 회원들 모두가 민족적인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